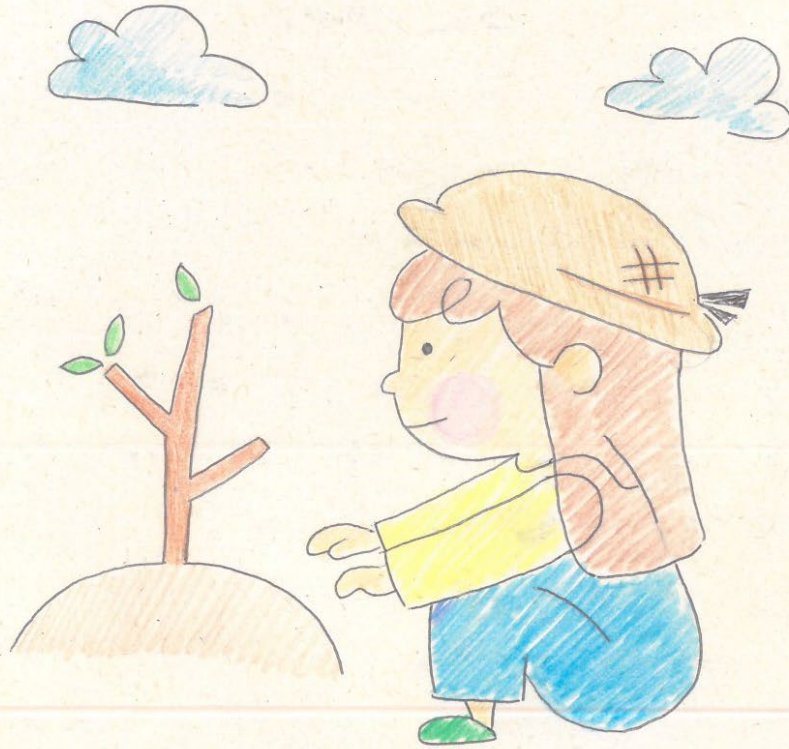




2025 년 5 월 23 일 금요일

날씨 흐림 ☁

5년전 나무를 심는 다은이



안녕!!ㅎㅎ 5년전의 다은아 갑자기 이렇게 편지가 와서 많이
놀랐지?? 나는 지금 원태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5년후에 있어
내가 로또 번호를 알려줄려고 이 편지를 쓰게 아냐 나는 지금
화명알기를 쓰고 있어 그럼 지금부터 싹 화명알기를 잘 읽고
꼭 실천해줬으면해!!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봐 ☆☆☆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날씨 흐림

5년전 과거의 나에게 ☆

To. 다은

안녕? 나는 5년후 다은이야 5년전의 나면 너는 10살이겠구나!

지금 2025년의 지구는 5년 전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졌어..

여름들어 해수면 상승, 산불피해와 같이 지구가 더욱 더 아파지고 있어.

그래서 나도 과거에 분라거를 더 잘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등의 후회를 많이해.

내가 5년전 나에게 쓰는 편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쓰는거야!

그러니까 내가 10살이 할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줄게!!

첫번째, 나무 많이 많이 심기☆ 나도 예전에 나무심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더 많이 심어야해!! 왜냐하면 최근에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오조리

타 버렸거든.. 하지만 지금부터 많이 심으면 돼!! 할수있어.

두번째, 분라거 잘하기.☆ 분라거를 잘 못하면 불에 탄 쓰레기들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가 뜨워져.. 그러면 당연히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겠지? 그럼 우리가 살수있는 땅의 면적도 줄어들거야

지금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미 없어진 나라들도 있어.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해 가지?... 그러니까 다은이 너라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자! 위에 내가 적어준 방법들만 잘해도 지구온난화를

아주 조금이라도 늦출수 있으니 화이팅!!

- 미래의 다은이가 -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





장려상

이다은 중학교 2학년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날씨 곧 비둘기같이 흐림

불편을 감수할 용기, 지구를 위한 '첫걸음'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하루 짝은 지구를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친환경 생활에 도전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던 일회용품을 내려놓고 대구 곳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하루'를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친환경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포기하고, 설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기차실 탭비설의 과자 봉지, 식당에서 건넨 플라스틱 생수병 앞에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외면해야 했다. 낯설고 번거로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여 작은 성취감이 되고 지구에게 도움이 됐다는 뿌듯함으로 돌아왔다.



21일 대구 중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 내에는 대나무 칫솔, 삼베 사위타를, 고체 치약 등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마련돼있다.

대구신문

지구의 날
친환경상품
체험

왼쪽 진열에는 대나무 칫솔, 삼베 사위타를, 고체 치약 등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있었다. 빈 유리병에 샴푸를 담고 종이 라벨이 붙은 대나무 칫솔도 하나 구입했다. **생지 모르게 멋진 소비**를 한 것 같

하루의 시작은 욕실에서부터 달라졌다. 평소 사용하던 액상 샴푸 대신 전날 받아 둔 **샴푸물**을 이용해 머리를 감고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간단한 천연 샴푸를 만들었다. 샴푸를 특유의 고소하고 묘한 냄새에 잠깐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개운했고 두피도 산뜻해진 느낌이 들었다. 손에 익지 않아 다소 번거로웠고 준비하는 데 평소보다 10분은 더 걸렸지만 지구에 도움이 됐다는 **뿌듯함**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전기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시동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출발도 부드럽다. 정류장을 떠나며 지나갈 때마다 **나 오늘 좋은 일한 사람 같다**는 **은근함이 스며들**을 들었다. 다들 버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간 40% 이상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나... **이게 바로 '출근길에 지구를 귀찮게'하는 기분** 아니겠는가.

◇점심은 비건 식단... '고기 없는 맛'의 반전, 제로웨이스트 삼까지 점심은 중구 동성로 인근의 한 비건 식당을 찾았다. 메뉴는 버섯과 콩으로 만든 위미트 치킨과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템페 강정 플레이트였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약 20~3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두부는 2kg, 콩은 0.9kg 정도에 불과하다. 처음 접하는 메뉴였지만 식감은 실제 치킨 못지않았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꽤 괜찮았다. '고기 없이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나.'의 정도면 먹고 싶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

은 기본에 괜히 우쭐해졌다.

식사 후 들른 카페에서는 미리 준비해 온 텀블러를 꺼냈다. 카페 직원은 **'지구 의 날 챌린지 하세요?'**라며 웃으며 텀블러를 받아주고 **할당량도 500원 할인**만 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분위기로 돌아온 유쾌한 순간**이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방 속 텀블러, 유리병을 들여다봤다. 번거롭고 낯선 하루였지만 **친환경 삶을 살아보** 경험은 **은 자부심**으로 남았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에게는 큰 유익을 수 있다. **일순간을 내려놓고 불편** **한을 감수할 용기**. 그것이 곧 지구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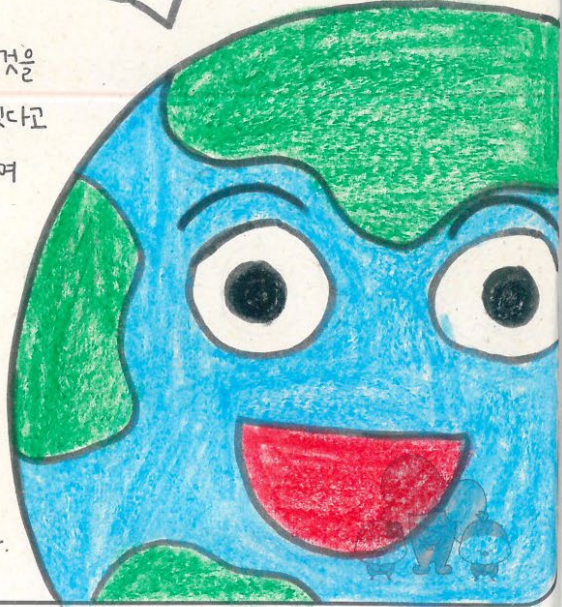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구나 또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 또, 텀블러를 사용하며 나도 카페에 갈 때 이 되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저 것들을 더 알아볼 것 은 사람들이 지구안타란 것을 깨닫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냉장고 문 닫!!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날씨 비가오고 바람이 불

온아름다운 여름

북태평양·티베트 고기압 동시 확장
열돔 현상에 폭염 빠르게 길어져

"1994년 여름에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폭염이 왔는데 불과 30년 만에 그 기록이 깨졌어요. 지구 온도는 직선으로 올라가지만, 폭염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 폭염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26일 역대급 폭염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올여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더 길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 큰 고기압이 만든 '열돔'과 폭염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 상공 덮음 → 열돔 현상 발생 →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 지속

자료: 기상청 폭염백서

✱ 이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폭염을 주제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읽고 엄청 두려웠다. 미래에 내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있을 때도, 할머니가 되어 있을 때도 지구의 기온이 무섭게 치솟아 온다 생각하면 정말 정말 두렵다. 폭염은 단히 더운 것이 아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남극과 북극에 쌓인 빙하가 녹고, 그럼 남극, 북극 동물들의 서식지를 잃은 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증가하여 우리와 삶의 터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압과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6월에는 체감온도가 27-28도 수준이지만, 7월은 30도, 8월은 32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의 강도가 극대화된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비가 적게 오는 6월과 8월에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해수

면 온도 탓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폭염과 열대야가 길고 독해진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키 큰 고기압'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확장하면 한반

사람들은 아직 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대로만 가면 내가 앞에서 이야기 했던 일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지도 모른다. 해수면 증가로 나라가 없어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 우리는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는 여유 말고 자를 지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지구는 우리의 집과 같다. 지구를 꼭 지켜야 한다!

✱ 이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제철음식먹기 - 수증기에서 생기는 탄소를 줄일수 있다.
2. 관개나 자전거대리, 대중교통 이용하기
3. 에어컨 사용 줄이기 - 여름철 실내온도 26°이상유지
4. 고기 소비 줄이기 - 재활용 또는 친환경 제품 사용
5.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도 상공에서 키 큰 고다. 이렇게 되면 마치는 것처럼 열이 축적돼 (Heat Dome) 현상이 길어진다. 지난해에도 인해 가을까지 지속한 이어졌다. 폭염일수는!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날씨 화창함 ☀

모기, 벌써 나왔사?!

기후변화에 봄철 모기떼 습격
지자체 억제제등 유충잡기 비상

모기가 옮기는 일본뇌염도 문제다.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5월에 발령되던 일본뇌염주의보가 2010년대 4월로 앞당겨지더니 2020년대 들어서는 3월로 더 빨라지는 추세다. 올해는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지난 3월 말부터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견됐다. 일본뇌염은 중증 진행 시 사망률이 20~30%에 이르고, 생존하더라도 30~50%는 신경계 후유증을 앓는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기 성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지구온난화로 모기 출현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떼가 습격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이다. 모기가 일본에 뇌염을 옮기며 원래는 5월에 발령되어야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며 2010년에는 4월, 2020년대에는 3월까지 앞당겨졌다. 이권의 핵심은 이 일본뇌염 모기가 지난 3월부터 제주와 전남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뇌염 모기는 사망률까지 높을 뿐더러 천령제 후유증까지 앓는 아주 위험한 문제이다. 교수는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면 모기 성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기 출현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며 당혹했다. 또,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은 길고 겨울이 짧은 날씨로 변하면서 모기떼의 습격이 빨라진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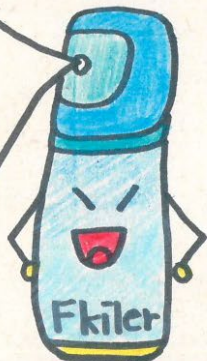
교수는 모기유충 1마리를 제거하는 것은 성충 500마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으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디지털 모기측정기(DMS)가 설치된 55곳에서 채집된 모기 수는 4월 첫째 주 387마리에서 넷째 주 2843마리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긴 날씨로 변화하면서 모기떼의 습격도 빨라진 것이다.



의 중심이 된다. "모기 유충 1마리를 박멸하는 것은 성충 500마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낸다(강남구 관계자)"는 것이다. 이동규 교수는 "정밀한 모기 감시 체계와 지역 맞춤형 방제 전략을 갖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이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냉큼 냉큼도 똬에 달려 대우 가려운데 앞으로의 기후변화 때문에 더 모기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니 정말 끔찍했다. 현재처럼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아져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없지만 앞으로 유충을 많이 잡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장려상

이다른 중학교 2학년

2025년 7월 12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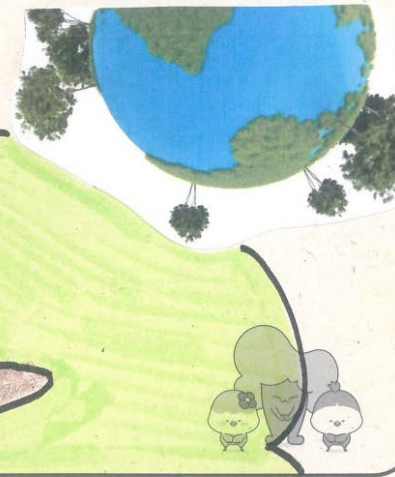
날씨 



2025년 7월 12일 목요일은 2025년 191번째 날이다. 2025년 7월 12일은 토요일이다. 2025년 7월 12일은 2025년 7월 12일이다. 2025년 7월 12일은 2025년 7월 12일이다.

2025년 7월 12일 목요일은 2025년 191번째 날이다. 2025년 7월 12일은 토요일이다. 2025년 7월 12일은 2025년 7월 12일이다. 2025년 7월 12일은 2025년 7월 12일이다.

2025년 7월 12일 목요일은 2025년 191번째 날이다. 2025년 7월 12일은 토요일이다. 2025년 7월 12일은 2025년 7월 12일이다. 2025년 7월 12일은 2025년 7월 12일이다.



글로벌 친환경 디자인
기니, 2025년 친환경 디자인
본 홀츠하우젠, 미친 가족 개발
제로 에너지 빌딩, 미친 리버

세계를 넘어, 단순히 리버만을 친환경
디자인으로만 증명하지 않고, 폐기물
의 무게를 줄이고, 영구적으로
바뀌며, 분리배출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
하는 것, 이 모두가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
하는 디자인이다. 각 나라마다 친환경 디자인
기준도 상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
준 고역 및 신규 고객들에게 공평의 중요

지속가능 경영 계획
세계 선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사회적 책임 고려한 고인 필요
소비 이후 ESG 실천까지 체계
적으로 관리한다. 이 경영은 지역 환경이
스마트일 필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을 높여야 하며, 지역 환경 건립의 모
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친환경 디자인의 핵심이다. 친환경 디자인은 단순히 친환경 디자인이 아니라,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이것이 친환경 디자인의 핵심이다. 친환경 디자인은 단순히 친환경 디자인이 아니라,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친환경 디자인을 증명하는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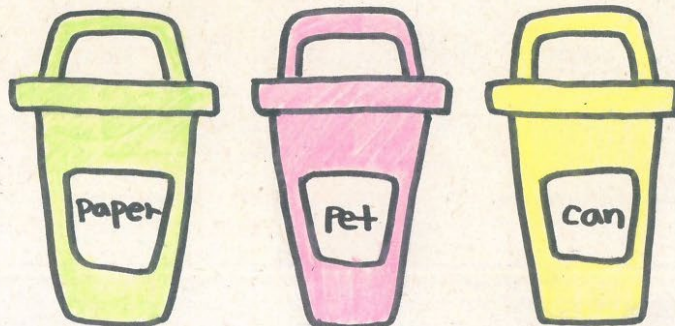


2025 년 7 월 16 일 수요일

날씨 흐림/비움

오늘의 환경일기 : 아빠와 분리수거

오늘은 아빠와 분리수거를 했다.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던 분리수거 쓰레기들이 넘쳐서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아빠에게 "우리분리수거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우라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비닐은 비닐에 버리고 종이는 종이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환경을 더 아낄수있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일수있다. 그러므로 우라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환경을 고려할수 있는 삶을 살아야한다. 앞으로 자를 재기위해 지금처럼 살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날씨 맑음/흐림

치맥축제만 열면 악취·쓰레기

**두류공원 일대 뒤처리 난맥상
생분해·다회용기 미흡수·부족
“준비 맨 출입 제한, 끝나니 피해”
市 “불편 최소화...내년 정책 보완”**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폐막한 뒤 두류공원 일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최 측이 작년부턴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도입한 다회용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뒷정리에 나선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뒤처리 쓰레기가 워낙 많아 직원들은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대신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급한 대로 갖길

나도 이 때 치맥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마냥 신나게 놀았는데 내가 매우 실망스럽고 내 자신에게 속시원해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갔었던 당시에 두류공원도 이정도 더러웠는데 신나게 논다. 이런 쓰레기들을 생각하지 못했으면 같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매우 놀랐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두류공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환경이타원들이 매우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치맥 페스티벌이나 축제에 갈때엔 이와 같은 일이 덜 생기게끔 나 하나라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했고 환경 알리를 쓰는 계기로 이 기사를 읽게 되며 나에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아야 겠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없게 생각해보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는 두류공원에서 최근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치맥 페스티벌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환경이타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의 기사이다. 축제가 끝난 지 이틀째인 날까지도 당시 쓰레기는 공원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고, 여전히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인 두류공원이 아닌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준다.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빠른 시일내에 청소해야 한다.

대구치맥페스티벌 폐막 이틀째 오전 공명주방의 모습.



대구시와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와 다회용기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다회용기가 사실상 일회용처럼 버려지면서 쓰레기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쓰레기를 정리하는 한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현철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와 논의해 이번 주 중으로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다. 다회용기를 배포하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내년에는 정책을 보완해 다회용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려상

이다는 중학교 2학년

2025 년 7 월 17 일 목요일 날씨 비움0

뜨거운 지구 쓰오로 막는다

기후 천사라고 불러줘!

고래를 바다 생태계의 수호자이자 기후를 지키는 기후 천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고래의 배설물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 고래는 큰 덩치만큼이나 하루에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스팔바르제도 해역에 여름마다 찾아오는 1만5000마리의 밍크고래는 하루 약 600톤(t)의 배설물을 쏟아내요.

나의 생각은 생명체들의 배설물로 지구를 막을 수 있다는 일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신기한 앞으로 꼭 이렇게 지구를 지키고 배설물로 전기를 만드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이런 ~~생태~~ 지구를 지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방법을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조 로만 영국 버트대 군드 환경연구소 연구팀은 영양분이 풍부한 고래의 배설물이 극지방에서 적도의 바다까지 이동하며 바다 생태계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지난 3월 실렸죠.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에서 혹등고래, 참고래 등이 매년 약 4000t의 질소와 4만5000t 이상의 유기물을 영양분이 부족한 적도의 열대 지방 해안으로 운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짝짓기와 출산을 하고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배설물의 영양분은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것.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에 따르면 고래가 해수면에 배설물을 배출하며 이동하는 길을 따라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일어나 파란색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 플랑크톤은 대기 중 탄소올 제거해 온실가스를 줄여줘요.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의 경우 산소의 약 50%를 생산하죠. 연구팀은 "고래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며 "사람은 사람 외의 다른 동물들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래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어요."

이 기사는 고래의 배설물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의 기사이다. 고래의 배설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래를 바다 생태계의 수호자, 기후 천사라고도 부른다. 고래는 큰 덩치만큼 하루에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도 많다.



노르웨이 부근에 있는 1만 5000마리의 밍크고래 하루에만 약 600t의 배설물을 배출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고래의 배설물이 극지방에서 적도의 바다까지 이동하며 바다 생태계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렇게 늘어난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되고 이 플랑크톤은 탄소를 제거해 온실가스를 줄여준다. 또, 사람의 배설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대신에 에너지로 바꿀 때 약 1.8%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체들의 배설물로 전기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급만급 귀하네!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조재원 교수는 사람의 배설물에 집중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대변의 양은 100~800g 정도. 조 교수는 9000만 국민의 배설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대신 에너지로 바꿀 때면 2020년 기준 국내 총발전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비율이 2020년 기준 7.5%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 방법은 이러해요. 사람의 대변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실험실로 운반해 미생물들의 먹이로 써요. 대변을 먹고 소화를 시킨 미생물은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배설물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다은 중학교 2학년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날씨 비온

